

보성 특산품 캐릭터 'BS삼총사', 대한민국 캐릭터 대상 수상



보성군에서 만든 특산품 캐릭터 'BS삼총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제3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영예의

제3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최다 득표 녹차·포막·키위 등 농가와 상생 기대

대상을 수상했다. 인구 4만여 명의 보성군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고양시 등 백만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활발한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최다 득표수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BS삼총사'는 보성군 대표 특산품인 녹차, 포막, 키위를 형상화해 캐릭터로 만들어 졌으며, 코로나19 상황 속

에서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만든 '착한 캐릭터'로 보성군 유튜브를 비롯한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 예산이 들어가는 전문 기관 캐릭터 개발 용역을 거치지 않고, 보성군 홍보팀 공무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모아 기획해 디자인 비용 3백만 원 만으로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점도 이슈가

됐다. 역대 최다 지자체(63개)가 참가한 이번 '우리동네 캐립픽'에서 보성군은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하며 슈퍼키로 떠올랐으며, 본선에서는 광역지자체와 수도권 중심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이기면서 모두를 놀라게 하는 등 중소자치단체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상황에서 군민과 향우가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뜻깊고, 그동안 SNS 기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던 보성군의 노하우와 군민의 열원 등이 복합적으로 동기

부여가 돼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것 같다."면서 "보성군민을 비롯한 공직자, 출향향우, 관광객, 주변 관공서 등 정말 많은 분들이 투표에 적극 동참해 주신 결과 1위를 수상할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걸맞게 지역민과 상생하며 지역을 알리고, 지역 농가를 살리는 착하고 실속 있는 캐릭터로 성장시켜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며, 캐릭터 축제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보성=김택순 기자



고흥유자 활용 청년·여성 기업 중국 대형 온라인 진출 업무협약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온라인 확대 맞춰 교두보 마련

고흥군은 최근 중국 유통 업체 JHE GLOBAL사(대표 이문걸)와 고흥유자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청년·여성기업 등 소기업의 중국 대형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고흥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온라인 시장 확대에 맞춰 지난 7월 미국 아마존 입점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중국 온라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 고흥군과 JHE GLOBAL사는 중국의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위챗의 모바일 쇼핑 플랫폼 웨이디엔에 유자차, 유자주 등 고흥유자 관련 4개 품목 입점을 시작으로 수산물, 농산물가공식품 등 다양한 신규 품목과 업체를 발굴하여 입점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입점 품목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 업체컨설팅 등 향후 2년간 고흥농수특산물 200만달러 매출을 목표로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경욱(농부누리)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중국 온라인마켓에 입점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제품개발에 힘써 더 좋고 많은 제품이 입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고흥유자의 최대 수출국가인 중국시장이 사드배치 문제와 코로나로 인해 수출 감소로 이어져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유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흥 농수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고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해 군민소득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 기자

순천시, 스카이큐브 시민공청회로 활성화 방안 찾는다

경영 활성화·운영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순천시는 지난 16일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스카이큐브 인수와 관련하여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스카이큐브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언론인 100여 명이 참석하여 인수 후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스카이큐브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인근의 순천문학관을 잇는 무인 소형경전철(PRT)로 지난 6월 대한상사중재원의 화해 권고결정에 따라 순천시는 포스코 자회사인 순천에 코트렌스로부터 관련 시설물 일체를

무상으로 이전받게 된다. 시는 지금까지 시민설명회 개최와 시민인수위원회 출범,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수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운영방안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지난 7월 이후 인수 진행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스카이큐브의 경영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시민의 지혜를 모아 대안을 마련할 때라는 것. 또한 포스코가 주장한 해지시지급금 1,367억 원 없이 시에서 무상으로 시설을 인수하는 만큼 향후 감가상각비나 차입금이자 등의 재정적 부담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국가정원과의 통합발전, 문학관역에서 순천만습지까지의 이동수단 마련, 이동간

불거리 필요성 등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를 집중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날 공청회는 순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하여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도 누구나 볼 수 있고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스카이큐브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의를 느낄 수 있었던 자리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방안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순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포스코로부터 2021년 4월까지 스카이큐브 관련 시설물 일체를 관리제하에 인수하는 상태로 인수하고, 각종 부품과 설계서 등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정상운영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 기자

광양소방, 농업인 교육생 심폐소생술 교육

광양소방서는 최근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기초농경작기술교육과정 교육생 20여명을 대상으로 "당신 덕분에 내 심장이 뛰어요" 라는 주제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 심정지의 원인 및 심폐소생술의 정의 ▲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과 증상 ▲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 일반인 구조자에 의한 기본소생술 순서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순으로 보고 만지고 즐기는 체험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광양소방서는 소방안전강사가 실습위주의 교육을 통해 교육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체험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 기자

랜선으로 즐기는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 인기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됐던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이 지난달 18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생중계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위로와 힐링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11월 28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비대면 온라인 버스킹을 운영한다는 것.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은 멋진 야경으로 유명한 해양공원 일대와 낭만포

차에서 매년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들이 공연하면서 여수 '버스킹의 메카'로 알려져 여수의 대표 관광콘텐츠가 되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개최가 불투명했다. 실시간 버스킹은 매주 금, 토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페이스북 <2020여수버스킹축제> 채널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 녹화 편집본은 유튜브 <KBC광주방송>으로 업로드 되어 언제든지 즐길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 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산구